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11. 21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 도시재생경제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우진 과장, 김동혁 사무관, 이호성 주무관 • ☎ (044) 201-4920, 492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"5년간 50조 들인다더니...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" 보도 관련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 6,8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, 상가 리모델링, 주차장 확충, 창업공간 임대,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·융자하고 있습니다.
- 다만 기금지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까지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, 도시재생지원 융자*, 수요자중심형 융자 등의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나,
 - * 도시재생리츠 등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
 - **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, 상가 리모델링, 주차장 확충, 창업공간 임대 자금 융자
-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기금자원은 4,552억 원* 규모(3개 융자상품 예산 3,218억 대비 141%)로, 금년 내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* (가로주택정비사업) 1,164억, (도시재생지원) 2,385억, (수요자중심형) 1,003억
-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수요*를 반영하여 정부안 기준 8,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 - * 인천역사 복합개발 출·융자 600억 등 내년도 집행 가능 기금자원 1.4조 원을 고려하여 '19년 기금 편성

-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, 도시재생지원 용자 금리 인하 등 관련제도를 개선*하였으며 '17년 말 선정 뉴딜시범 사업과 올해 선정한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('18.5월)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및 연대보증 완화

('18.7월) 도시재생지원 용자금리 인하(2.5% → 2.2%), 용자한도 확대(총사업비 20% → 50%), 지원대상 확대(리츠 → 공공·민간 사업시행자)

('18.8월) 임대상가조성자금 용자상품 신규 출시

-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금상품 개발·출시, 기금 출자·용자 심사 절차 간소화, 보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, 11.20) >

-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자(9.2%), 도시재생지원 용자(26%), 수요자중심형 용자(50% 이하) 등 기금지원 집행 부진
- 내년 기금예산 편성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(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)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김동혁 사무관(☎ 044-201-49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